

김영록 3선 도전... ‘유권자 절반’ 해남 출신 후보들 단일화 변수

■ 누가 뭐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김영록 의원이 3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명옥재, 국민의당 윤영일·김영균·이영호·박종백, 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바둑을 다지고 있다.

이 지역구의 관전포인트는 해남 민심의 향배다. 해남은 유권자 수가 6만5000여 명으로 완도(4만5000)와 진도(2만8000)의 유권자 수를 합친 것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해남·진도에서 해남·완도·진도로 개편된 뒤, 완도 출신의 김영록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해남 정치권의 상실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시 단일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영록 의원은 해남에서 39%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5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를 반영하듯, 해남 출신 예비후보들은 최근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는 등 해남 민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민심 저변에 흐르고 있는 국민의당 바람이 만만치 않아 해남·진도·완도의 판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한 박지원 의원의 행보도 변수다. 박 의원이 고향인 진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의 손을 치켜들고 지원 유세에 나선다면 전체적인 판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비교적 무난한 의정활동을 했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당 후보와 더민주 김영록 의원의 일대일 구도가 형성된다면 승리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해남·진도·완도 새누리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민주당	
이름	명옥재	김영록	김영균	박종백	윤영일	이영호	
나이	70	61	49	55	58	61	
역력	·현 당 해남·완도·진도 당협위원장 ·전 해남군의원	·현 국회의원 ·전 더민주 수석대변인	·현 한중문화협회 이사 ·현 두영무역 대표	·전 국회의원 출마 ·전 노무현 대통령 직속 동북아 시대위문위원	·현 한국외대 초빙교수 ·전 감사원 교육원장	·현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호남지도소장	·전 해군제1함대 사령관 ·전 해군군수사령관

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명옥재씨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바둑을 다지고 있다. 명 후보는 제1·3대 해남군의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기반이 나름 탄탄하다. 하지만, 명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해 3.1%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명 후보 진영에서는 이정현 의원(순천시)의 당선 등을 계기로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명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바둑을 다져왔다는 점도 지역 민심이 평가해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김영록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재선을 지내면서 김 의원은 무난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김 의원에게 ‘양날의 칼’이다. 무난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더민주의 전신 정당에서 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수석 대변인, 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좋게 말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평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별다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료형 정치인’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민주의 분당 과정에서 당초

명옥재 새누리당 ‘나홀로’ 등록 후 바둑 다져 더민주 김영록 의원 외에 예비후보 등록 없어 국민의당 김영균·박종백·윤영일·이영호 도전 19대 총선 20% 득표 윤재갑 민주당 후보 등록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고신 끝에 결국 마음을 바꿔 더민주에 잔류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3선 중진에 도전하는 현역으로서 정치적 소신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에서는 3선에 당선된다면 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직불금 확대 등 강력한 농어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농어업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남해안 철도 전철화, 전남-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 등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굵직한 사업들을 챙기겠다는 약속도 내놓고 있다. 김 의원 측에서는 선거판을 뒤 흔들 만한 거물급 경쟁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둑 민심만 잘 다진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해남 후보 단일화 등에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윤영일, 김영균, 이영호, 박종백 등 4명의 예비 후보가 난립하면서 치열한 본선 티켓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김영록 의원에 대해 해남 민심을 중심으로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김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선에서 김영록 의원과 일대일 구도가 형성된다면 민심 저변에 불고 있는 국민의당 바람을 토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감사원 재정경제국장과 교육원장, 유엔(UN) 감사관을 거쳐 기업은행 감사 등을 지낸 윤영일 후보는 중앙 무대에서 다양한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록 의원과 같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울돌목, 아리랑, 장보고 등 지역의 역

■ 전남지역 선거구



사적 자산이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 농어업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펴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영균 두영무역 대표도 젊은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민심을 다지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봉호 전 의원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이 양날의 칼이다. 부친의 탄탄한 지역적 기반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부자(父子)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영하배 우 고(故) 장진영씨의 남편이라는 점도 화제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해남·완도·진도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살려 지역 발전을 이루는 한편, 호남 정신 구현을 통해 정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호 씨도 국민의당 공천 경쟁에 합류했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1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수산 전문가로 활약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완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 공천을 받는다 면 완도와 해남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안산 상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패배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노무현대통령 직속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종백 예비후보는 15·16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총선 도전이다. 그는 해남 민심의 자존심 회복을 기지로 바둑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의 낙선에 굴하지 않고 민생의 현장에서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무대에서 검증받고 지역 현안에 밝은 준비된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20.86%의 득표율을 기록, 만만치 않은 내공을 선보였다.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여부다. 양 당의 물 밑 접촉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민심과 소통하며 지역의 실정과 정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 측에서는 해남·완도·진도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현실안주형이 아닌 위기의 호남 정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바둑을 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관전 포인트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의 관전 포인트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해남 민심의 향배다.

일단 더민주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비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완도 출신의 김 의원이 사실상 상단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서 이영호 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해남 출신이다. 전반적인 지역 분위기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더민주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민약, 완도 출신의 더민주 김영록 후보와 해남 출신의 단일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는다면 선거 구도는 소지역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판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영록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만큼 해남 민심의 아쉬움도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 의원은 해남에서 3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맞서는 해남 출신 국민의당 및 민주당 예비 후보

들은 단일화 등을 거론하며 해남 민심의 결집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진영에서는 지난 8년 동안 해남에 쏟은 정성과 성실한 의정 활동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이다. 또 해남 출신 후보들의 소지역주의에 대한 반발 정서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김 의원의 무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 갈증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이 과감한 도전과 응전보다는 당내 정치 질서에 순응하면서 정치적 존재감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지역과 호남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구도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시 예상되고 있다”며 “인물론과 해남 민심의 향배가 판세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대 총선때 완도 포함 ... 지역색 두드러져

■ 선거구 특징

해남·완도·진도 선거는 지역색이 두드러지는게 특징이다. 3개 자치단체중 인구가 많은 해남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완도출신의 더민주 김영록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곳이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3선에 도전한다.

완도군보다 해남군 유권자가 숫자가 많지만, 매년 총선때마다 해남 출신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해남 표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남 출신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

다. 현재 해남군 인구가 7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완도군 5만3000여명, 진도군 3만3000여명이다. 따라서 해남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18대 총선에서부터 나뉘었다. 이전 총선에는 해남과 진도, 완도와 강진 두 개의 선거구였다.

강진군을 제외하고 3개 군이 합쳐져 1개 선거구로 됐다. 18대 총선에서 완도군수 출신이었던 김영록 현 의원이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선거구다.

/이종희기자golee@kwangju.co.kr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모 집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 급

- 주거환경개선사 (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본학회 4학기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7: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증별로 별도 커리큘럼

■ 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 이사장 윤갑원 (尹甲源) 프로필

-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 (書記官) 역임
-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경희대, 東서울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德成女大, 서울教育大,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教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會圓 매주 定期的인 現場教育 實施
- ◆ 著 書
 - 1. 道統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 "선조함동묘(先祖合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봉관(棚杆)"
- ◆ 홈페이지 : http://tmps.kr 또는 "통맥풍수" 를 치세요. e-mail : insans@daum.net



이사장 윤갑원



학회장 김용국

제5대 이사

- 이 사 장 윤 갑 원
- 상임이사 김 용 국
- 이 사 김 종 수
- 이 사 임 태 종
- 이 사 황 정 연
- 이 사 이 중 근
- 이 사 정 병 선
- 이 사 양 동 주
- 이 사 정 태 일
- 이 사 이 미 경
- 감 사 박 석 규
- 감 사 김 영 희
- 사무국장 윤 인 성
- 총 무 조 복